

2026년도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마치고

일 시: 2026년 4월 8일(수)~10일(금)

장 소: 대전컨벤션센터(DCC)

완연한 봄기운이 감도는 4월,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6년 한국고분자학회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분자 과학과 기술을 이끄는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적 교류를 통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회에는 총 2,576명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기초강연 1편 및 삼암고분자상 수상기념강연 1편을 비롯해 초청강연 166편, 신진연구자 발표 20편, 일반구두발표 8편, 대학원생 구두발표 194편, 포스터 발표 894편 등 총 1,284편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분자 과학의 이론적 기반부터 최신 응용 기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가 다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심화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기회로서 충분한 학술적 밀도를 갖춘 대회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 첨단 기능성 소재, 헬스케어 및 바이오 응용, 국방/우주 플랫폼 소재기술, 차세대 전자 소재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세션이 구성되었습니다. 고분자 합성, 구조 및 물성, 가공 및 복합재료, 재활용 기술 등 기초부터 응용에 이르는 스펙트럼 안에서 학문적 깊이와 실용적 가치가 균형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원생 영어 발표 세션과 ACS 특별 세션, 한화토탈에너지스 및 한화솔루션, 도레이첨단소재의 후원으로 진행된 산업체 세션은 학계와 산업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총 39개 기업이 참여한 홍보 부스에서도 현장 연구자들이 직접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 정보를 접하고 산업계와의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고분자 과학과 기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학회의 최고 영예인 한화고분자학술상은 연세대학교 박철민 교수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중견학술상은 도레이첨단소재, 롯데케미칼, LG화학의 후원으로 전북대학교 나석인 교수, 한양대학교 위정재 교수, 중앙대학교 유영재 교수가 각각 수상하였으며, TCI고분자학술진보상은 울산과학기술원 이동욱 교수가 수상하였습니다. 신진학술상은 울산과학기술원 구강희 교수, 충남대학교 송슬기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혜정 박사가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기술상은 롯데케미칼 오송주 회원과 LG화학 최재선 회원에게 수여되었으며, 최삼권우수학위논문상은 박사 부문에서 울산과학기술원 유지수 회원과 중앙대학교 임지현 회원이, 석사 부문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에서 회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승은 회원이 수상하였습니다. 모든 수상자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첫날 저녁 간담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되어 새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을 더하였습니다. 사흘간의 일정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마련된 이 자리는 갖 도착한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어우러지며 학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리는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문에 대한 진지한 열정 덕분입니다. 특히 이번 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끈 김영섭 회장님, 이택승 수석부회장님, 학회 운영 전반을 총괄해 주신 이기라 전무이사님, 실무를 맡아주신 김도환, 조정호 총무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각 세션을 기획하고 진행해 주신 학술이사님들과 좌장님들,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행사 전 과정을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이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학회에서 신진학술상을 수상하는 뜻밖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함께 연구를 이끌어온 학생들과 연구원들 덕분에 잘 알기에,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연구자로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새기며 이번 대전에서의 학회 후기를 마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혜정〉

2026년도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마치고

